

## 왜계 문물 수용의 전환기로 본 가야와 왜의 교류양상\*

김 준 식\*\*

- I. 머리말
- II. 3~5세기 가야와 왜의 교류양상
- III. 6세기 가야와 왜의 교류양상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6세기를 기점으로 가야와 왜의 교류양상이 물적 교류에서 고차원적 인적 교류로 변화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3~5세기 가야와 왜의 교류는 토기, 청동기, 철기 등의 물질자료를 매개로 이루어졌고, 일본열도 각지에서 제작된 물품들이 규슈지역을 경유하여 가야지역으로 전해진다. 우선 3~4세기 가야와 왜의 교류를 주도한 세력은 김해 대성동고분군을 축조한 금관가야의 지배층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철 소재를 포함한 한반도 각지에서 집적된 자원과 중국계 문물의 중계까지 활용한 대외교류를 기반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고구려군의 남

\* 이 글은 필자의 「가야 속의 왜계문물의 현상과 과제」, 『동아시아의 열린 공간, 가야』,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2023) 발표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 (재)세종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 evpopular@nate.com



정을 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서 5세기부터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다. 이때를 기점으로 가야와 왜는 교류 대상과 지역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김해지역을 벗어나 남해안 일대 및 경남 서부 내륙지역으로 왜계 문물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5세기 이후부터 가야와 왜를 연결하는 크고 작은 항구가 운영되면서 교류와 관련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고, 나아가 대왜 교역과 관련된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6세기 가야와 왜의 교류는 물적 교류를 넘어 고차원적 형태의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왜계 고분을 통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가야지역에서는 왜계 고분의 축조와 관련된 각 요소만 출현한 것이 아니라 왜인의 상장의례와 관계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당시 가야와 왜의 인적 교류의 핵심은 정치·외교의 목적보다 선진기술 및 정보의 습득과 관련이 깊다. 일본열도에서는 금공, 마사와 같이 선진기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었고, 가야지역과 인접한 규슈 지역에서는 다양한 출신의 왜인들이 모여들었다. 이때 규슈 북부지역과 중서부지역 출신의 왜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야와 교류를 주도하였음이 왜계 고분문화에서 확인되며, 고대 사회의 상징적 기념물인 고분을 통해 교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상호 경쟁적 관계의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때 규슈 중서부지역 출신의 왜인들 중 일부는 가야지역에 정착하는 삶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가야, 왜계 고분, 물적 교류, 인적 교류, 전환기, 선진기술



## I. 머리말

일본의 고대 문화는 한반도 남부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전을 거듭하였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구축하였음이 양국의 고고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남해안을 배경으로 한 백제-가야-왜의 교류 흔적은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활발했던 교류를 잘 보여주고 있다. 3~6세기 한반도 동남부지역은 규슈[九州]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이전 시기부터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이는 김해 봉황대유적, 사천 늑도유적, 창원 다호리유적 등에서 조사된 야요이[彌生]시대의 물질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대 한일 양국의 교류가 남긴 고고학적 흔적은 가야-왜의 교류는 물론, 한반도를 넘어 고대 동아시아 사회상의 일면을 복원하기 위한 문화사적 의미도 상당하다.

현재 가야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왜계 문물은 대개 일본열도에서 직접 수입된 것과 가야 현지에서 모방·제작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야지역의 왜계 문물은 주로 토기, 청동기, 철기, 옥·석제품의 형태로 확인되나 6세기 이후부터는 가야 현지에서 왜계 고분이 축조되는 점이 주목된다. 인간의 내세관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면서 물질문화의 상징성까지 강한 고분의 출현은 물질자료의 일상적인 교류와는 확연히 다른 문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6세기를 기점으로 가야와 왜의 교류양상은 물질 교류를 넘어 인적 교류로 확대되며, 교류의 성격과 목적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물질자료의 교류와 관계된 인간의 노동력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인적 교류란 가시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무형의 개념 즉, 인간의 생각 또는 의식과 동반되는 정치·외교·사회·기술·정보 등의 고차원적인 교류를 말한다.

주지하듯이 가야와 왜의 교류와 관계된 고고학적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와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최근에도 한일 양국의 고고자료를 집대성한 성과가 있었다.<sup>1)</sup> 그럼에도 시기별로 가야와 왜의 교류양상을 비

---

1) 박천수, 『고대한일교류사』, 경북대학교출판부, 2023.



교하여 특징을 가려내고, 핵심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그 의미까지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가야와 왜의 교류사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3~5세기의 물질 교류 중심에서 벗어나 6세기 이후부터 전개되는 고차원적 인적 교류를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왜계 고분문화에 반영되어 가야 사회에서 표출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왕의 연구를 토대로 가야지역에서 대형 목곽묘의 출현과 함께 권역의 중심지에 대규모 고분군을 조성하기 시작한 3세기부터 가야가 멸망하는 6세기까지 가야지역에서 확인된 왜계 문물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핵심 자료를 정리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치와 외교, 선진기술과 정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인적 교류가 본격화되는 6세기를 전환기로 설정하고, 그 흔적을 왜계 고분문화의 출현을 통해서 설명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3~5세기 가야와 왜의 교류양상

3~5세기 가야와 왜의 교류는 다양한 물질자료를 매개로 이루어졌고, 일본열도 각지에서 생산·제작된 물품들이 한반도 남부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규슈지역을 경유하여 가야지역으로 전해졌다. 가야와 왜의 초기 교류양상은 낙동강 하류지역의 고고학적 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며 이때 교류를 주도한 세력은 김해 대성동고분군을 축조한 금관가야의 지배층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고김해만으로 이어지는 지리적 환경을 활용하여 한반도 남부지역의 대외교역을 주도하였다. 이에 철 소재를 포함한 한반도 각지에서 집적된 자원과 중국계 문물의 중계까지 활용한 일본열도와의 교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음이 다수의 고고학적 현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김해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 왜계 청동계 의기류의 존재는 당시 긴키[近畿]지역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어 그 의미가 상당하다.



그러나 광개토대왕비에 기록된 고구려군의 남정(400년)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금관가야는 5세기 직후부터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며, 이때를 기점으로 가야와 왜의 교류는 그 대상과 지역의 다원화가 이루어진다. 사실 김해지역을 대신할 경제적 소통의 창구가 필요했던 왜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현상이고, 그 결과 5세기 이후로는 김해지역을 벗어나 남해안일대 및 경남 서부 내륙지역으로 왜계 문물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즉, 3~4세기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었던 고김해만을 벗어나 5세기 이후부터는 남해안일대에서 가야와 왜를 연결하는 크고 작은 항구가 운영되면서 교류와 관련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나아가 금관가야 세력이 약해진 분위기 속에서 대왜 교역과 관련된 소지역 단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가야와 왜의 교류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해지역에서도 이전 시기만큼은 아니지만 5세기 이후에도 왜계 문물이 꾸준히 도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고민도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야와 왜의 교류양상을 낙동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진 3~4세기, 그리고 남해안일대 및 경남 서부 내륙지역으로 교류의 범위가 확대된 5세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낙동강 하류지역 중심의 교류(3~4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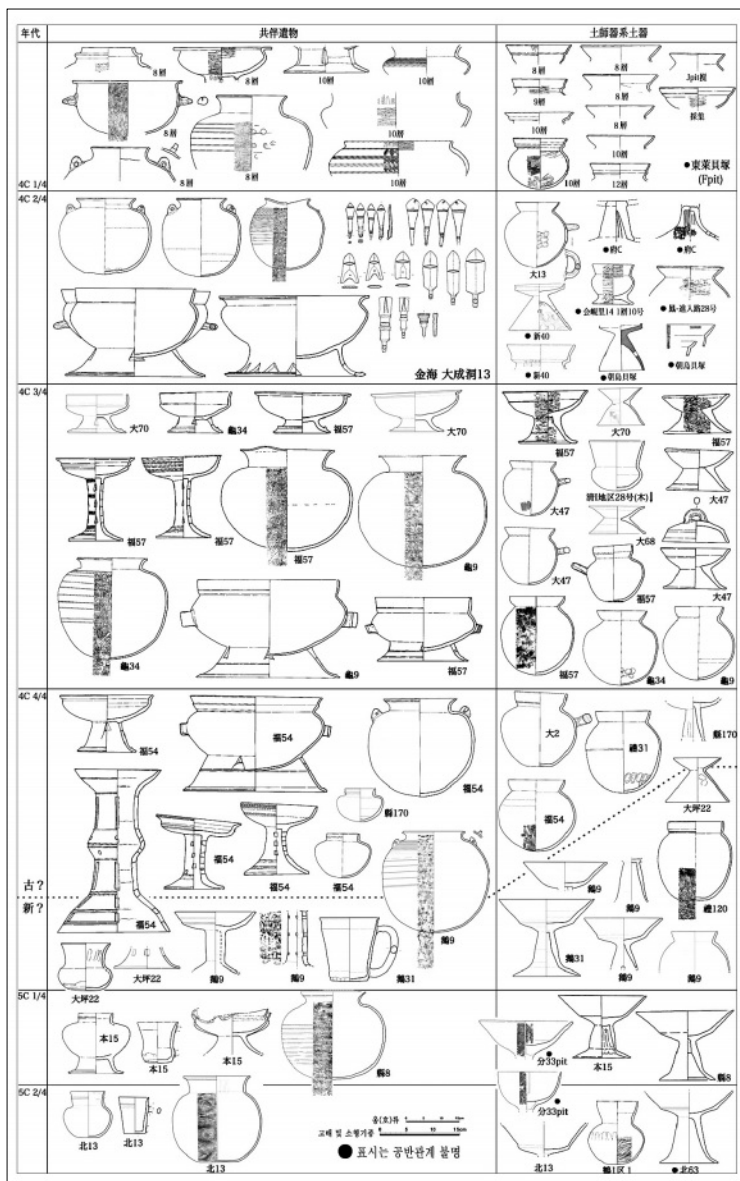
### 1) 토기

3~4세기 가야지역의 왜계 토기는 하지키[土師器]로 대표되고, 일본 고훈[古墳]시대에 주로 일상생활용으로 사용된 적갈색 연질토기를 말한다(그림 1). 하지키는 형식에 따라 쇼나이식[庄内式]과 후루식[布留式]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sup> 먼저 쇼나이식은 오사카부[大阪府] 도요나카시[豊中市] 쇼나이유적[庄内遺跡]에서 출토된 하지키를 말하며, 3세기를 대표하는 하지키라 할 수 있다.

---

2) 朴天秀, 『가야문명사』, 진인진, 2018.





<그림 1> 가야지역 출토 하지키(계)의 편년(조성원, 2016)



하지키 기종 중 다수를 차지하는 호(瓮)를 대상으로 본 쇼나이식의 특징은 구연부가 “〈”형으로 크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강하게 돌출되어 얇고 날카로운 형태이다. 동체부는 기벽이 얇고, 외면에 타날과 목리흔이 함께 관찰되며, 바닥은 원형이나 尖底에 가깝다. 후루식은 나라현[奈良県] 덴리시[天理市] 후루유적[布留遺跡]에서 출토된 하지키를 말하며, 4~5세기를 대표하는 하지키라 할 수 있다. 후루식 호(瓮)의 특징은 구연부 내면이 내만하고, 구연단 내측은 두껍게 처리되어 날카롭지 않다. 동체부는 기벽이 두껍고, 외면에 목리흔이 관찰되며, 바닥은 원형이다.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하지키는 거의 대부분 후루식에 해당한다.

계통은 긴키지역 보다는 규슈계[九州系], 산인계[山陰系], 세토우치계[瀬戸内系] 등 일본열도 각지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경우와 가야 현지에서 모방·제작된 하지키계[土師器系]로 구분된다.<sup>3)</sup> 최근에는 호쿠리쿠계[北陸系], 키비계[吉備系]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해당 지역과 직접적인 교류보다 규슈 북부지역을 통해 가야지역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4)</sup> 가야지역 하지키(계)의 기종은 호(瓮)가 대부분인 가운데 고배, 소형기대, 광구소호, 이중구연호 등으로 다양하게 확인된다. 분포는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집중되며, 이를 통해 당시 가야-왜의 교류는 금관가야가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하지키(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볼만한 것은 3세기의 부산 동래패총 F피트 출토품이 가장 대표적이며,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예안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소형옹도 비슷한 시기의 규슈계 하지키로 알려져 있다. 4세기 이후부터 5세기 무렵까지는 하지키(계) 토기의 출토량이 급증하고, 패총과 주거지 등 생활유적 이외 분묘유적에서도 다수 부장되고 있다. 특히, 4세기 전~중엽은 부산 동래패총을 비롯하여 조도패총·북천동고분군·괴정동고분군, 김해 대성동고분군·예안리고

3) 井上主税, 「朝鮮半島南部の土師器系土器について」, 『韓式系土器研究』 X, 韓式系土器研究會, 2008.

4) 조성원, 「영남지역 출토 4~5세기대 土師器系土器의 재검토」, 『한국고고학보』 99, 한국고고학회, 2016.



분군·퇴래리고분군·봉황대유적·부원동패총·회현리패총, 창원 성산패총, 마산 현동유적, 진해 용원유적 등 김해·부산지역 중심의 낙동강 하류 전역에서 확인되며, 남해안일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sup>5)</sup> 특히, 4세기 후엽을 지나면서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하지키(계) 토기가 이전 시기보다 감소하는 현상까지 관찰되어 이 무렵 왜인의 교류 대상 및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청동제 의기

3~4세기 가야지역에서 출토되는 왜계 청동제 의기는 廣形銅矛, 筒形銅器, 巴形銅器가 대표적이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광형동모는 규슈지역과 쓰시마[對馬]에서 거꾸집이 출토된 사례가 있어 일본열도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6)</sup> 가야지역에서는 김해 대성동88호분을 비롯해 양동리고분군·내덕리고분군 등 김해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데 특히, 양동리고분군에서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되었다. 이외 고성 동외동패총에서도 출토된 사례가 있다.

둘째, 통형동기는 길이 10cm, 너비 2cm 내외의 원통형으로 제작되었고, 창 의 자루 끝이나 의장용 지팡이 상부에 끼워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한 형태의 의기에 해당한다. 일본열도에서는 긴키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며, 시기는 고훈시대 전~중기에 집중된다. 가야지역에서는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양동리고분군과 망덕리고분군 등 김해지역에서 다수 확인되며, 부산 복천동고분군(38호·60호)과 창원 석동유적(388호)에서도 확인되어 역시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4세기 전엽의 포항 남성리유적(II-12·13호 목곽묘)에서도 2점이 확인되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에 가야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역의 출토 사례를 고려하면 일본열도 현지와

5) 4세기 중엽 이후로는 경주 월성동 가-31호, 경산 임당저습지유적, 창녕 계성리유적, 거제 아주동 1485번지유적, 강릉 강문동유적, 함평 소명유적 등에서도 하지키(계) 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6) 박천수, 앞의 책(2018), 249쪽.



수량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김해지역에서 제작되어 입수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7)</sup>

셋째, 파형동기는 방패나 화살통의 표면을 장식한 것으로 추정되며, 통형동기와 마찬가지로 긴키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통형동기와의 큰 차이점으로 특히, 88호에서는 12점의 파형동기와 함께 (중)광형동모 1점, 통형동기 3점, 석제품 2점 등 다수의 왜계 청동제 의기가 부장되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서 파형동기는 4세기 금관가야와 왜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최상급의 문물이면서, 당시 왜와 교류는 김해 대성동고분군 세력이 주도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김해 대성동고분군 출토 왜계 청동제 의기

### 3) 옥 · 석제품

옥제품은 소위 翡翠로 불리는 경옥을 가공하여 제작한 곡옥이 대표적이다. 경옥은 대개 일본열도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근거로는 첫째, 경옥의 출현 시점이 국내 사례보다 수백 년 이상 빠르고, 둘째, 아직까지 국내에서 경옥의 산지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경주·양산·완주지역 등 국내 출토품의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 그 산지가 니가

7) 鄭澄元·洪潛植, 「筒形銅器」, 『福岡大學綜合研究所報』 240, 福岡大學, 2000.



타현[新潟縣] 이토이가와[糸魚川]로 확인된 점 등을 들 수 있다.<sup>8)</sup> 경옥제 곡옥은 주로 경식으로 제작되며, 가야지역에서는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부산 복천동고분군에서 확인되었다.



<그림 3> 김해 대성동고분군 출토 왜계 옥·석제품

석제품은 대부분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확인되었고, 양동리고분군과 망덕리고분군에서도 소량 확인되었다. 석제품의 기종은 화살촉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방추차형과 통형 등이 확인되었고, 주로 녹색응회암을 소재로 사용하였다.

## 2. 교류 대상과 지역의 다원화(5세기)

### 1) 토기

5세기 가야지역의 왜계 토기는 5세기 이후 출토량이 급감하는 하지키(계)를 대신하여 스에키[須惠器]로 교체된다. 스에키는 가야토기의 생산 기술의 영향을 받아 5세기를 전후하여 일본열도에서 생산된 환원염소성의 경질토기를 말하며, 스에키의 출현을 통해 대규모 토기 가마 축조, 녹로 성형, 고온 소성 등 토기 생산 기술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일본열도에서 스에키의 최초 출현 시점은 대개 5세기 전엽으로 알려

8) 박천수, 앞의 책(2023), 97쪽.



져 있으나, 교토부[京都府] 우치시가이[宇治市街] 유적 SD302 유구에서 초기 스에키와 공반된 미완성 목제품의 연대가 389년으로 조사되어 4세기 후엽부터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sup>9)</sup> 스에키의 편년은 오사카부[大阪府] 스에무라 가마터[陶邑窯跡群] 출토품을 기준으로 오바테라[大庭寺] TG231·232 - TK73 - TK216 - TK208 - TK23 - TK47 - MT15 - TK10 - MT85 - TK43 형식 순서로 설정되어 있다.

가야지역에서는 5세기 중엽부터 일본열도에서 제작되어 직접 수입되었거나 또는 가야 현지에서 제작된 스에키(계) 토기가 출현하며, 시기는 대체로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으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사실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스에키의 편년과 연대에 관해서는 크게 TK23 형식의 연대를 어느 시점(5세기 후엽 또는 6세기 전엽)으로 보는가에 따라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최근 연구에는 TK208(5세기 중엽) - TK23(5세기 후엽) - TK47(5세기 말) - MT15(6세기 초·전엽) - TK10(6세기 전·중엽) 형식으로 편년되고 있다(그림 4).<sup>10)</sup> 기준은 개배가 가장 많은 가운데 유공광구소호, 고배, 자라병 등이 소량 확인되었다. 분포는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김해·부산·마산·사천 등 낙동강 하류 및 남해안일대에서 확인되며, 고령·함천·산청·함안 등의 내륙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출토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야 전역에서 확인되는 양상이다.

한편, 한반도 남부지역의 스에키(계)는 백제 서남부지역(영산강유역)에서도 확인되는데, 가야지역의 경우 일본열도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사례가 많은 반면, 백제 서남부지역의 경우 현지에서 모방한 형태가 다수 확인되어 차이를 보인다.<sup>11)</sup> 그리고 가야지역의 스에키(계)는 하지키(계)와

9) 浜中邦弘·田中元浩, 「宇治市街遺蹟(宇治妙楽55)古墳時代流路SD302について -出土須恵器と年代觀の検討を主として-」, 『第14回京都市埋藏文化財研究會發表資料集 -京都市内最新の研究成果-』, 京都市埋藏文化財研究會, 2006.

10) 李知熙, 「한반도 출토 須恵器의 시공적 분포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鈴木広樹, 「가야권역에서 출토된 스에키계 토기의 역사적인 배경」, 『문화재』 55-2,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11) 木下亘, 「한반도출토須恵器(系)土器에 대하여」, 『百濟研究』 3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편년을 근거로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5세기 후엽~말의 주요 스에키(계)를 살펴보면 TK23 형식은 고성 송학동1A-1호, 함안 오곡리 28번지 M1호, 산청 명동 1구 22호·68호, 함천 봉계리 20호, 고령 지산동1-5호, 부산 기장 동백리 3구 12호, 김해 관동리 4구 수혈 69호 등이 대표적이고, TK47 형식은 고성 송학동1A-1호, 마산 대평리 I-M1호, 산청 명동 1구 22호·2구 8-2호·14호, 부산 기장 동백리 3구 12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가야지역의 스에키(계)는 고성 송학동고분군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의 중·소규모 고분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위세품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 2) 철제 무기(구)

가야지역의 왜계 문물 중 금속기와 관련해서 5세기부터는 3~4세기의 청동제 의기를 대신하여 철제 무기(구)가 출현한다. 당시 가야지역에서 출토되는 왜계 철제 무기(구)는 갑주와 사행검이 대표적이다. 우선 5세기 이래 가야지역의 왜계 철제 무기를 대표하는 왜계 갑주는 소위 帶金이라 불리는 횡방향으로 긴 철판을 기준으로 아래 위에 삼각형이나 장방형의 지판을 배치한 후 가죽 끈이나 못으로 연결하여 제작하는 이른바 대금계 판갑과 투구를 말한다. 三角板甲, 長方板甲, 橫長板甲으로 대표되는 대금계 판갑은 衝角附胄, 眉庇附胄, 遮陽胄 등과 함께 일본 고훈시대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갑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5세기의 대금계 갑주는 김해 두곡고분군·죽곡리고분군, 부산 가달고분군·연산동고분군·오륜대고분군, 함안 말미산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함천 옥전고분군, 함양 상백리고분군, 여수 죽림리 차동고분군 등 가야 각 권역에서 골고루 출토되고, 창녕 교동 3호분에서도 삼각판갑이 출토된 사례가 있다. 이외 고성 송학동1A-1호에서는 왜계 札甲이 출토되었다.

가야지역에서 왜계 갑주는 분포범위가 비교적 넓게 확인되나 판갑과 투구가 세트를 이루며 동시에 부장된 사례는 고령 지산동32호와 김해 두곡43호 정도이고, 대형분이 아닌 중소형분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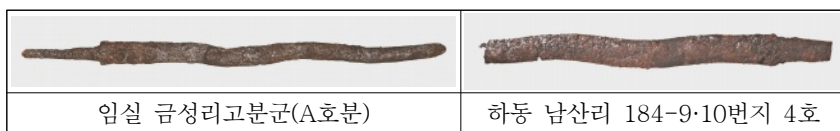


그리고 왜계 갑주는 주로 고분에 부장되는데, 다른 왜계 문물이 공반된 사례가 거의 없다. 즉, 5세기 가야의 왜계 갑주는 고분의 규모와 부장사례 등을 고려하면 위세품적인 목적으로 입수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가야와 왜의 교류의 상징성을 보여주거나 의례적인 목적으로 입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5〉 가야지역 출토 왜계 갑주

다음으로 철을 소재로 제작한 신부가 뱀의 형상과 같이 좌우로 흰 사행검은 가야에서 매우 보기 드문 형태이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12점의 사행검(모)이 출토되었으나 일본열도에서는 약 100여 점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일본열도에서 제작되어 한반도에 전해진 것으로 본다.<sup>13)</sup>



〈그림 6〉 가야지역 출토 사행검

13) 유영춘, 「삼국시대 사행검(蛇行劍) 一考察」, 『한국고고학보』 2022-2, 한국고고학회, 2022.



국내에서는 5세기 전엽부터 고흥·신안지역 등에서 출현하였고, 가야지역에서는 5세기 중엽부터 등장하여 6세기 전엽까지 유행하다가 소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sup>14)</sup> 분포를 살펴보면, 창원 석동유적(305호 목곽묘, 425호 목곽묘)·도계동 8호 목곽묘, 하동 남산리 184-9·10번지 유적 4호 석곽묘 등 남해안 일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섬진강 상류의 가야고분군인 임실 금성리고분에서도 출토된 사례가 있다. 사형검은 형태상 비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왜계 갑주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이나 위세품적 성격이 아닌 의례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역시 가야와 왜의 교류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 3) 옥·석제품

5세기 이후로는 고령 지산동73호분에서 경옥제 곡옥을 사용한 경식이 출토되었고, 지산동44호분에서 경옥제 곡옥과 함께 마노제 구슬이 출토되었다.<sup>15)</sup> 함천 옥전M2호분과 M4호분에서도 경옥제 곡옥과 함께 마노제 곡옥이 출토되었다. 경옥제 곡옥은 4세기와 달리 5세기 이후로는 김해·부산지역 등 낙동강 하류지역 보다 고령·함천지역의 대가야권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 3. 3~5세기 가야와 왜의 물적 교류의 흐름

3~4세기 가야지역에서는 왜인의 정주를 추정할 수 있는 생활유적이거나 분묘유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동강 하류지역에 집중된 왜계 문물의 존재를 통해 가야와 왜의 활발했던 교류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왜계 청동제 의기의 존재 및 대외교류 관련 고고자료의 성격으로 볼 때 교류의 핵심지는 역시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지역(대성동고분군)으로 보

14) 유영춘, 앞의 논문(2022), 417~420쪽.

15)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편년은 73호→35호→32호→44호→45호 순서로 알려져 있으나 역연대에 관해서는 연구자마다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고령 지산동 44호분의 연대를 5세기 후엽~말의 시기로 설정한다.



는 것이 자연스럽다.<sup>16)</sup> 여기서 4세기 무렵 긴키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왜계 청동제 의기가 김해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현상을 단순히 교류의 관점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통형동기와 파형동기는 당시 긴키지역의 지배층 묘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에서 소위 위세 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러한 문물이 4세기 금관가야 중심지로 이입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김해와 긴키지역 사이의 정치·외교적인 의미를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3~4세기 가야와 왜의 교류는 낙동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주도한 세력은 금관가야 지배층이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나 핵심은 철 소재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일본열도에서는 6세기 이후부터 비로소 자체적인 철의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sup>17)</sup> 그 이전 시기는 각종 철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고고학적 현상에 근거하면 김해지역을 통해서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문헌기록<sup>18)</sup>을 포함하여 3~4세기 일본에서 출토된 철정<sup>19)</sup>의 형태가 소위 금관가야형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sup>20)</sup> 따라서 당시 왜의 정치적 중심지인 긴키지역에서는 철 소재를 수입하는 대가로 금관가야 지배층에게 최상급의 청동제 의기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금관가야는 김해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왜계 청동제 의기를 소유하였고, 나아가 인접 지역의 분포양상으로 볼 때 금관가야 지배층은 외래 문물의 최소한 가치를 내세워 권역 내 핵심지역과 공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16) 대성동고분박물관, 『동아시아 교역의 가교 대성동 고분군』, 2013.

17) 김권일, 「일본 고대 키비(吉備)지역 초기 철 제련유적 검토」, 『유라시아문명사연구회 제24회 정기발표회』, 유라시아문명사연구회, 2023.

18) 『三國志』魏志, 「東夷傳」, 弁辰條,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19) 삼국시대 철정의 기능과 용도에 관해서는 철기 소재, 화폐, 의기 등 여러 견해가 있으나 탄소함유량이 낮은 고순도의 강이면서 침탄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철기 제작을 위한 중간 소재(원료)로 판단된다.

20) 朴智惠, 「4~6世紀 嶺南地方 出土 鐵鎚의 變遷과 地域性」,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82쪽.





〈그림 7〉 통형동기와 파형동기의 분포로 본 금관가야와 왜(박천수, 2018)

이는 비슷한 시기에 일상생활용 토기인 하지키(계)의 분포가 4세기 중엽 이후부터 김해를 포함한 낙동강 하류지역을 벗어나 남해안일대 및 내륙지역에서도 확인되는 현상과 대비된다. 즉, 하지키(계)의 분포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왜와의 교류 대상 및 지역의 다원화를 말해주는 것이나 그럼에도 왜계 청동제 의기는 여전히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당시 가야지역에 출현한 하지키(계)의 계보가 다양하면서 산발적인 분포양상을 보이는 것은 결국 일본열도 각 지역에서 규슈 북부지역을 거치며 가야지역으로 전해지는 일상적인 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물론, 최근에는 창원 석동유적과 포항 남성리유적 등에서 통형동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여러 관점의 해석도 가능하겠으나 아직까지는 김해지역과 비교하면 양적인 차이가 현저하다.

5세기 가야와 왜의 교류양상은 금관가야의 쇠퇴로 인해 변화를 맞이



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3~4세기 교류의 핵심지역인 낙동강 하류지역을 벗어나 남해안일대로 교류지역과 대상이 확대되고, 대가야권역인 고령과 함천 등 내륙지역에서도 왜계 문물이 대거 분포하는 점이다. 특히, 근래 4~5세기 대규모 분묘·생활유적이 조사된 마산만(현동), 진동만(대평리), 진해만(석동) 등 남해안일대의 발굴성과에 더해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남강 중상류지역까지 소가야양식 토기가 확산되는 양상을 고려하면 적어도 5세기 전엽은 금관가야(김해)를 대신하여 소가야(고성) 세력이 가야의 대외교류 창구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세기 이후로는 철 소재를 매개로 한 김해지역과 긴키지역의 긴밀한 교류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이와 관련된 무역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5세기부터는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문물(청동계 의기)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현상 또한 관찰되지 않는다. 이후로는 청동기를 대신하여 철기의 소유를 강조한 갑주, 사행검과 같은 철제 무기(구)가 새로이 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동계 의기와 비교하면 출토 수량과 부장 양상, 고분의 규모와 성격 등에서 위세적인 성격으로 인식되었을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5세기 전엽 금관가야를 대신하여 소가야가 가야와 왜를 연결하는 새로운 대외교류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더라도 이전의 금관가야와 왜의 관계처럼 최고 수준의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한 독점적인 교류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에키(계)와 함께 5세기 가야지역의 왜계 문물을 대표하는 대금계 판갑과 투구, 5세기 늦은 시기에 출현하는 찰갑 등 왜계 갑주는 고성·거제 등 남해안을 비롯해 고령·함천·함양·함안·창녕 등 내륙지역, 동해안의 울산지역에서도 확인되는 등 특정 지역 및 고분군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야지역에서는 5세기부터 사행검이 새로이 출현하는데 하동·창원 등 남해안일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역시 왜와 교류지역 및 대상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왜계 갑주가 다수 출현하는 현상은 당시 금관가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세



기 이래 낙동강 하류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한 신라와 관계된 것으로 이해하면서 금관가야를 대신하여 5세기 전~중엽 신라와 왜의 교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주목된다.<sup>21)</sup> 당시에도 철 소재 수입이 절실했던 왜는 비록 남해안일대로 교류지역을 확대하였으나, 실상은 기존의 주요 교류 창구인 낙동강 하류지역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이에 금관가야를 대신해 이 일대에 영향력을 행사한 신라와 관계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 5세기 전엽 긴키지역에서 출토된 철정은 양단부에 요철이 있으며 평면형태가 비대칭의 세장한 형태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신라형으로 분류되고 있다.<sup>22)</sup> 또한, 이 무렵부터 일본열도에서는 신라계 금공품(관식, 경식, 이식, 대장식구, 장식마구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도 왜와 신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5세기 후엽이 되면 고령과 함천지역, 남강 중상류지역 등 대가야권역에서 스에키(계), 갑주, 경옥제 곡옥 등 왜계 문물의 이입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또한, 이때부터 6세기까지 수십 년 동안 대가야 금공품(관, 이식, 대도 등)이 일본열도 각지에 분포하고 있어 당시 가야와 왜의 교류의 주체는 대가야가 분명하다.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으나, 5세기 후엽 이후로 대가야 금공품이 일본열도 현지에서 모방·제작되고 있음이 감지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 Ⅲ. 6세기 가야와 왜의 교류양상

6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가야지역에는 왜계 문물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전 시기에 비하면 그 종류와 수량이 감소하는 양상이다. 먼저 3~4세기 왜계 문물을 대표했던 청동제 의기는 4세기를 끝으로 출토 사례를 찾기 어렵다. 하지키(계)는 보이지 않고, 스에키(계)는 산청 생초고분군

21) 박천수, 앞의 책(2023), 610~612쪽.

22) 朴智惠, 앞의 논문(2013).



이나 고성 송학동고분군 등 특정 고분군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금계 판갑의 감소세도 뚜렷한데, 이를 대신하여 찰갑이 출현하고 있으나 소수만 확인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왜계 고분 출토품을 제외하면 왜계 갑주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된다.<sup>23)</sup> 경옥제 곡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합천 옥전고분군을 중심으로 확인되어 그 출토 범위가 한정적이다.

이처럼 6세기부터 가야지역에서 왜계 문물의 구성 변화와 양적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돌연 왜계 고분이 축조되는 현상이 주목된다. 고대 사회에서 고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타국의 고분이 출현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특히, 가야지역에서는 왜계 고분의 축조와 관련된 각 요소만 출현한 것이 아니라 왜인의 상장의례와 관계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고분 내 피장자가 왜인일 가능성은 물론, 귀국하지 않고 가야지역에서 정주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 6세기 이전까지 가야와 왜의 교류 관계를 보면 청동기, 철기, 토기 등 다양한 문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고분을 포함하여 왜인의 정주를 상정할만한 뚜렷한 고고학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6세기 이후 묘제와 장제, 의례적인 부분 등 포괄적인 의미에서 왜계 고분문화의 출현과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규슈 각 지역 출신의 왜인들이 고분을 축조하면서 이중 일부가 정주하게 된 배경을 고차원적 인적 교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왜계 고분의 출현

### 1) 왜계 석실의 축조

6세기 가야지역에서는 비슷한 시기 백제 서남부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규슈지역 계통의 석실이 축조되기 시작하는데,<sup>24)</sup>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

23) 김혁중, 「4~6세기 찰갑을 통해 본 한일 교류」, 『한국고고학보』 2021-1, 한국고고학회, 2021.

24) 왜계 석실을 규정하는 다양한 속성 중 대표적인 것이 석실의 연도와 현실을 구분하는 玄門시설의 존재이다. 이와 더불어 규슈지역에서 확인되는 연도구조(八字形), 평면



목적에 의해 가야지역으로 건너온 왜인이 귀국하지 않고 정주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전술한대로 왜계 석실의 출현은 5세기까지 유행하였던 물적 교류 중심에서 벗어나 왜인의 상장의례와 관계된 부분까지 가야지역으로 이입되었기 때문에 당시 인적 교류를 포함하여 대외관계를 이해하는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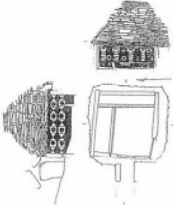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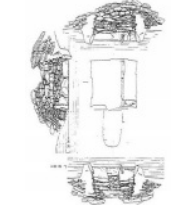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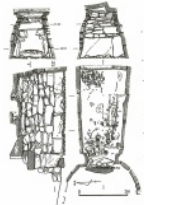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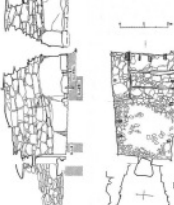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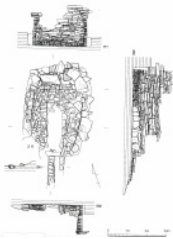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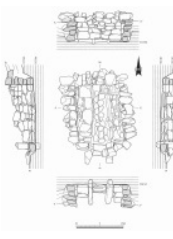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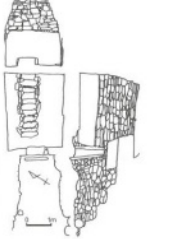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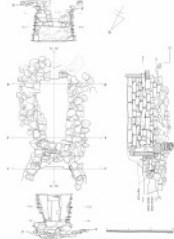
현재 가야지역에서는 거제 장목고분, 고성 송학동1B-1호분, 사천 선진리고분, 사천 향촌동Ⅱ-1호분, 의령 경산리1호분, 의령 운곡리1호분 등 6기의 왜계 석실이 확인되며, 남해안일대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낙동강 서안 및 남강 수계와 인접한 곳에 입지한다. 가야지역의 왜계 석실은 단 6기에 불과하지만, 석실 구조에서 차이가 현저하다. 이에 고성 송학동 1B-1호분이나 의령 경산리 1호분과 같이 현지 묘제에 왜계 요소가 부가된 사례를 포함하여 일본열도에서도 계보를 구하기 어려운 구조에 대해서는 가야 현지에서 제작된 소위 創出型으로 인식하고 있다.<sup>25)</sup>

규슈지역에서 계통을 구할 수 있는 왜계 석실은 다시 두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후쿠오카현[福岡縣]과 사가현[佐賀縣] 일원의 규슈 북부 지역, 그리고 구마모토현[熊本縣]을 중심으로 아리아케카이[有明海] 연안을 포함하는 규슈 중서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규슈 북부지역은 기타규슈형[北九州型] 석실인 후쿠오카현 반즈카[番塚] 고분과 사가현 세키교마루[關行丸] 고분이 대표적인데, 두 고분 모두 한반도와 관계된 유물이 다수 출토된 것이 특징이다. 석실 구조는 현문시설, 梯形 평면형태, 八자형 연도, 후벽 하단부의 요석 등을 특징으로 하여 거제 장목고분과 비교할 수 있다.

형태(梯形, 胴張形), 시상배치(口形), 石棺, 대형석재(大石, 腰石), 石棚, 葺石 등의 요소는 왜계 석실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다.

25) 柳澤一男, 「5~6世紀韓半島と九州-九州系埋葬施設を中心として」, 『加耶, 洛東江에서 榮山江으로』, 제12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金海市, 2006; 홍보식,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횡혈식석실의 구조와 계통」,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학연문화사, 2011.



히고형[肥後型]		기타규슈형[北九州型]	
			
千金甲1號	丸山2號	番塚古墳	関行丸古墳
熊本縣	佐賀縣	福岡縣	佐賀縣
			
운곡리1호분	향촌동Ⅱ-1호분	신덕1호분	장목고분
가야		백제(영산강)	가야

〈그림 8〉 일본 규슈지역 석실과 한반도 남부지역 왜계 석실 비교

다음으로 규슈 중서부지역은 히고형[肥後型] 석실인 구마모토현 센자키[千崎] 5호분, 다노가와치[田川内] 1호분, 세곤고[千金甲] 1호분, 우스즈카[臼塚] 고분, 사가현 마루야마[丸山] 2호분 등이 대표적이다. 석실 구조는 현문시설, 방형~장방형 평면형태, 직선적인 연도, Ⅱ형 시상 배치 및 석관, 후벽의 석봉 시설 등을 특징으로 한다. 가야지역에서는 의령 운곡리1호분, 사천 향촌동Ⅱ-1호분과 비교할 수 있다. 두 고분은 단독입지의 거제 장목고분과 달리 일정한 묘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분 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석실 내부에서는 추가장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한편, 사천 선진리고분은 규슈지역의 영향 속에서 성립된 창출형 왜계 석실로 알려져 있으나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가야지역 왜계석실의 피장자는 석실 내외부에서 나타나는 고고학적 현상에 근거하여 왜인으로 보는 견해와 현지인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왜인이 현지에 정주하게 되면서 등장한 왜계 현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6)</sup> 고대 사회 속 고분문화 수용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일본열도 현지의 상상의례까지 함께 이입된 상황을 고려하면 왜계 석실의 피장자는 왜인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나,<sup>27)</sup> 그럼에도 석실 구조의 계통을 포함한 피장자의 출신은 한반도 남부지역(백제, 가야)과 왜의 관계 속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논란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up>28)</sup>

## 2) 장식 토기의 사용

고분의 정상부나 주변부를 장식하는데 사용된 독특한 형태의 토기인 하나와[埴輪]는 당시 왜인들의 정신세계 또는 상상의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광주 명화동고분과 월계동고분, 고창 칠암리고분, 영암 자라봉고분, 함평 장고산고분, 해남 장고봉고분 등 백제 서남부지역에 축조된 전방후원분에서 주로 원통형이나 나팔형의 형태로 출토되었다. 최근 함평 금산리 방분에서는 인물, 말, 새 등을 표현한 형상 하나와가 출토되었고, 영암 내동리 쌍분에서도 인물, 멧돼지, 사슴 등

26) 의령 운곡리와 사천 향촌동 사례와 같이 석실 내부에서 수차례 추가장이 이루어지면 서 시차를 두고 가야와 신라 유물이 혼재한 경우에는 가야지역에서 활동한 왜인의 2~3세대가 신라에 병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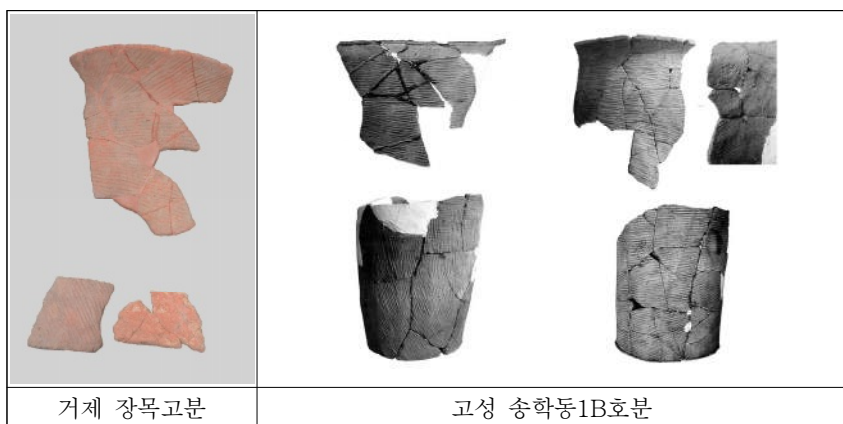
27) 홍보식,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요소 -기원후 3~6세기대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44, 한국고대사학회, 2006; 김규운·김준식, 「한반도 전방후원분과 왜계석실의 분포유형 검토」, 『韓國上古史學報』 70, 한국상고사학회, 2010.

28) 백제 서남부지역 전방후원분의 출현배경, 함평 신덕 1호분(왜계 석실)과 2호분(백제 사비기 횡혈식석실)의 관계,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 내 옹관의 성격(왜계 석실구조와 현지 옹관의 관계) 등의 문제를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을 표현한 하니와가 출토되어 당시 백제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하니와가 존재하였음이 밝혀졌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하니와는 다른 왜계 토기와 마찬가지로 일본열도에서 직접 수입된 것과 가야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하니와는 토기 본연의 의미보다 의례적 의미가 더 주목된다. 즉, 광주 명화동고분의 사례와 같이 고분 주변의 장식 또는 의례적인 목적으로 하니와를 배치한 행위를 보면 일본열도의 고분문화가 거의 그대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역시 전통적인 한반도 남부지역의 고분문화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6세기 가야지역에서도 고성 송학동1B호분 주구와 거제 장목고분 봉토 주변에서 원통형 하니와가 출토되었는데, 외면에 타날흔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9> 가야지역 출토 하니와(원통형)

### 3) 철제 무기(구)의 의례적 활용

기타규슈형 석실인 거제 장목고분은 연도 폐쇄 과정에서 철모와 삼지창을 부장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철모 1점은 연도 우벽에 꽂힌 상태로 확인되었다. 철모의 鑿部에 목질흔이 잔존하고, 鋒部를 연도로 향한 점



으로 보아 의례적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타규슈형 석실인 후쿠오카현 반즈카[番塚] 고분의 현실 후벽에 꽂힌 3점의 철모와 비교할 수 있다.<sup>29)</sup> 또한, 연도 입구 동쪽의 즈석 하부에서 출토된 대도는 의도적으로 절반가량 구부린 채 부장하였기 때문에 역시 가야 고분에서 보기 어려운 왜계 고분문화와 관계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0> 거제 장목고분에서 철제 무기(구)의 의례적 활용 사례

한편, 주거지나 사찰에서 출토된 찰갑의 의례적인 성격에 주목한다면,<sup>30)</sup> 거제 장목고분에서 출토된 찰갑 역시 이러한 의미로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금계 판갑에 이어 등장하는 찰갑은 대개 6세기를 전후하여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6세기 이후의 찰갑은 전방후원분을 포함한 왜계 고분에 한정하여 출토되는 것이 특징이다.<sup>31)</sup> 다만, 최근에는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된 찰갑의 수량과 제작 시기, 공반유물 등을 고려하면 과연 왜계 갑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되나,<sup>32)</sup> 6세기 이후의 왜계 찰갑의 의례적인 부분에 대해서

29)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巨濟 長木 古墳』, 2006, 90쪽.

30) 김혁중, 「고대 갑주의 의례적 성격 -고분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2022-2, 한국고고학회, 2022.

31) 김혁중,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倭系 甲冑)의 분포와 의미」, 『중앙고고연구』 8, (재)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는 철제 무기(구)의 부장양상과 더불어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 왜계 고분문화의 성격과 특징

기왕의 연구에서도 3~5세기 가야와 왜의 교류는 유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6세기 이후로는 유물과 함께 유구의 교류는 물론 그에 수반된 문화적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sup>33)</sup> 즉, 6세기를 기준으로 이전 시기는 주로 유형의 물질자료를 매개로 경제적 목적에 따라 교류하는 형태였다면, 6세기 이후로는 물질자료의 개념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형의 습속·관념·정치·사회적 목적에 따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6세기 이후 교류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왜계 고분문화의 이해와 함께 왜인의 이주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사실 일본열도에서는 한반도 이주민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들이 종종 보인다. 야요이시대 후기에 조성되어 3세기 후엽부터 급속도로 성장한 니시진마치[西新町]유적은 일본열도 각지의 토기와 함께 가야 토기, 영산강유역 토기 등 한반도계 토기가 출토되었고, 철 소재로 사용된 판상철부가 출토되는 등 규슈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교역항이다.<sup>34)</sup> 이 유적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당시 한반도인들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부뚜막 시설, 자비용 연질토기 등이 주거지 내부에서 확인되는 점이다.<sup>35)</sup> 이는 물질 교류와 함께 이주로 대표되는 직접적인 인적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열도에서는 이후로도 소위 도래인이라 불리는 5~6세기 한반도 이주민들의 정착 흔적을 각지의

32) 김혁중, 앞의 논문(2021), 55쪽.

33) 홍보식, 앞의 논문(2006), 38쪽.

34) 武末純一, 「土器에서 본 加耶와 古代日本」, 『加耶史論集1 -加耶와 古代日本-』, 김해시, 1998.

35) 久住猛雄, 「하카다만 무역의 성립과 해체 재론 -토기에서 본 왜와 한반도 교역망의 변천-」, 『금관가야의 국제교류와 외래계 유물』, 제20회 가야국제학술회의,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4.



여러 유적에서 볼 수 있으나 한반도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가야지역에서는 니시진마치유적에 필적할 수준은 아니지만 당시 낙동강 하류의 부산 동래패총, 김해 관동리와 신문리유적에서 왜인들의 이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 특히, 동래패총은 철생산과 관련된 단야로와 함께 3세기 후엽의 하지키(계) 토기가 확인되었다. 이 단야로와 하지키(계)를 근거로 동래패총 주변에는 금관가야와 교류에 종사한 왜인들의 거주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역시 규슈지역으로 철 소재를 중개·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6)</sup>

다만, 동래패총과 관동리·신문리유적은 모두 교역항이라는 유적의 성격과 철생산 또는 하지키(계) 토기를 근거로 왜인의 이주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주거생활 중 일부가 반영된 니시진마치유적 사례와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크다. 이 외에도 왜인의 이주 가능성을 살펴볼만한 취락유적이 일부 있으나 4세기 이후로는 그마저도 찾아보기 어렵다.<sup>37)</sup> 이 와중에 6세기부터 왜의 상장의례에 충실한 왜계 고분이 남해안일대에서 돌연 출현하고 있다. 이에 가야지역에서 왜인의 이주, 나아가 인적 교류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로서는 취락의 흔적보다 왜계 고분문화를 통해서 훨씬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야지역 왜계 석실의 계통과 관련하여 기타규슈형과 히고형 석실 모두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골고루 확인되나, 전방후원분으로 한정하면 그 분포의 차이가 뚜렷하다. 지금까지 전방후원분 내부에서 조사된 왜계 석실은 기타규슈형이 대부분인 가운데 창출형도 일부 확인되었다. 반면, 히고형의 경우에는 아직 전방후원분 내부에서 조사된 사례는 없고, 장성 영천리고분, 의령 운곡리1호분, 사천 향촌동Ⅱ-1호분 등의 원분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즉, 히고형 왜계 석실을 축조한 집단은 원분을 조성하였고, 기타규슈형 왜계 석실을 축조한 집단은 전방후원분과 원분

36) 洪潛植, 「釜山東萊貝塚出土の土師器系土器」, 『福岡大学考古学論集 -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事業會, 2004.

37) 마산(대평리, 현동), 진해(용원동, 웅진), 거제(아주동), 고성(동외동) 등 남해안일대 취락유적에서 하지키(계)를 중심으로 왜계 문물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을 모두 조성하였다. 이에 전방후원분과 관계된 규슈 북부지역 출신의 왜인은 주로 정치적 활동, 원분을 축조한 규슈 중서부지역 출신의 왜인은 교류·교역 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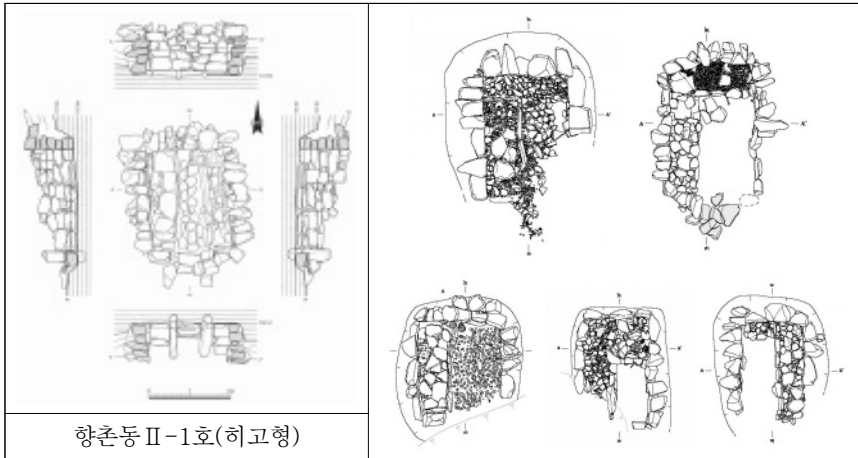
또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왜계 석실의 계통에 따라 분형은 물론 입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전방후원분을 포함한 왜계 고분의 경우 단독으로 입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 월계동과 고창 칠암리에서 각각 2기 이상의 전방후원분이 확인되면서 왜계 고분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아직은 단독 입지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가야지역은 의령 운곡리고분군, 사천 향촌동고분군 등 히고형 왜계 석실이 중심이 되어 현지 고분과 함께 고분군을 조성하였다.<sup>39)</sup> 이처럼 현지에서 왜계 석실과 함께 고분군을 조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주한 왜인 또는 현지화 된 왜인(2~3세대)의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사천 향촌동고분군의 경우에는 왜계 석실이 축조된 이후에도 시상 배치와 석관 등 왜계 요소 중 일부가 고분군 내부에서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그림 11). 이러한 현상은 가야 멸망 이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사천 향촌동고분군 축조 집단은 왜계 석실이 축조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왜인의 정체성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전방후원분과 원분을 동시에 축조한 기타규슈형 왜계 석실 축조집단은 단독으로 입지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원분을 축조한 히고형 석실 축조집단은 현지에서 고분군을 조성하여 왜인의 정주 또는 현지화의 가능성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왜계 석실의 계통과 입지로 본 규슈 북부지역 출신 왜인과 중서부지역 출신 왜인은 백제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각각의 역할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히고형 석실의 경우 가야 멸망 이후에도 고분군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현상, 더욱이 내부적으로 왜계 요소가 승계되는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8) 김준식, 「倭系石室로 본 加耶와 倭의 교류」, 『大丘史學』 136, 大丘史學會, 2019.

39) 창출형 왜계 석실(1호분)이 포함된 의령 경산리고분군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1> 사천 향촌동고분군 석실 구조 비교(왜계 요소의 승계)

### 3. 6세기 가야와 왜의 인적 교류의 의미

가야와 왜의 인적 교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왜왕권에 서 가야지역으로 파견한 외교사절단의 존재이다. 키비노오미[吉備臣], 카와치노아타히[河内直], 이쿠하노오미[的臣] 등의 사신은 가야지역에 장기 체류하면서 가야 지배층에 협력하여 주변국(백제, 신라)에 대한 외교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0)</sup> 문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들이 실제로 왜왕의 지시에 따라 가야지역으로 파견된 외교사절단이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상위 계층의 인물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다만, 외교사절단의 임무가 종료된 이후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즉, 가야 멸망 무렵 본국으로 귀국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가야 지역에서 정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6세기 가야지역 왜계 고분의 피장자 중 일부를 이때 외교사절단으로 활동한 인물과 관계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41)</sup>

40) 이영식, 「문헌사학으로 본 가야」,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2016, 584~586쪽.



왜왕권의 주도로 가야지역에 파견된 외교사절단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정주하였고, 사망 후 그들의 묘제와 장제를 계승한 고분을 축조한 것은 당시 가야와 왜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특히, 묘제 형식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된 상장의례까지 표현된 것은 왜인의 주도하에 고분이 조성되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가야지역에서 왜계 고분을 축조한 인물이 왜왕권에서 파견한 외교사절단이라면 원분이 아닌 전방후원분으로 축조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전방후원분은 당시 일본열도 내부적으로 왜왕권과 관계된 계층과 지역에서 공유하는 분형이다. 영산강유역 전방후원분의 존재를 백제 중앙과 왜왕권의 정치·외교적 관계로 이해하면서 백제의 요청에 의해 당시 왜왕권이 장악한 규슈 북부지역의 주요 세력을 파견하였다는 입장도 이러한 흐름을 중요시하고 있다.<sup>42)</sup> 그리고 영산강유역 전방후원분의 규모가 당시 규슈 각 지역 지배층의 무덤과 비슷한 50m 수준인 점도 주목된다.<sup>43)</sup> 따라서 만약 왜왕권의 주도로 파견된 왜인들이 귀국하지 않고 가야지역에 정착하여 고분을 축조하였다면 전방후원분으로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까지 한반도 남부지역 전방후원분의 조사 성과에 근거하면 이때 매장시설은 히고형이 아닌 기타규슈형 석실일 것이다.<sup>44)</sup>

가야지역 왜계 고분 내 매장시설은 크게 기타규슈형과 히고형 석실로 구분되며, 현지 요소가 복합된 창출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하였다. 전방후원분 내부에서 확인되는 기타규슈형 석실은 가야지역에서 거제 장목고분이 유일하다. 고분군을 형성하여 정주의 가능성이 큰 의령 운

41) 이영식, 「가야문화의 국제적 성격 -김해 대성동구분군과 함안 말이산고분군을 중심으로-」,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함안 말이산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심포지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

42) 김규운·김준식, 앞의 논문(2010), 91쪽.

43) 宮元香織, 「横穴式石室からみた九州の後期首長墳について」, 『後期古墳の再検討』, 第11回九州前方後圓墳研究會 佐賀大會, 九州前方後圓墳研究會, 2008.

44) 가야지역에서는 히고형 석실을 축조한 고분군에서만 정주의 흔적(석실 내 왜계 요소의 승계, 가야 멸망 이후의 추가장, 누세대 고분군 형성)이 확인되고 있다.



곡리1호분과 사천 향촌동Ⅱ-1호분은 히고형 석실로 확인되었고 역시 원분으로 조성되었다. 현지 요소가 복합된 창출형의 고성 송학동1B-1호 석실과 의령 경산리1호분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어려우나, 의령 경산리의 석옥형 석관은 규슈 중서부지역과 관계가 깊어 히고형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창출형으로 알려진 사천 선진리고분은 왜계 고분임은 분명하지만, 정식 발굴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계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방후원분의 부재 및 기타규슈형 석실의 희소성 등을 고려한 가야와 왜의 인적 교류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정치·외교의 목적보다 선진기술 및 정보의 습득과 관계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우선 가야지역 왜계 고분은 대부분 남해안일대의 기항지·교역장·항시와 연계된 연안항로에 입지하고 있으며,<sup>45)</sup> 내륙에 위치한 의령 운곡리와 경산리도 낙동강과 남강변에 인접하고 있다. 이에 기본적으로 水運에 유리한 입지에 고분을 조성하였고, 이는 항로상 표지가 되는 위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일본열도에서는 대가야 문물이 집중되며 특히, 금공품(금동관, 금제이식, 장환두대도, 장식마구 등)이 다수 확인되어 대가야가 당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교류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6)</sup> 나아가 일본열도로 이주한 대가야 공인에 의해 제작된 환두대도(명문)가 왜왕권에 의해 각 지역의 호족들에게 위세품으로 분여한 것으로 보면서 당시 대가야의 지배방식을 모방하였을 가능성까지 제시하기도 한다.<sup>47)</sup> 왜왕권이 환두대도를 매개로 대가야의 지배방식까지 모방하였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적어도 5세기 후엽부터는 대가야 금공기술이 일본열도로 전해지면서 현지에서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48)</sup> 예컨대, 후쿠이현[福井縣]

45) 鄭仙雲, 「加耶 港市의 成立과 展開」,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46) 박천수, 앞의 책(2023), 495쪽.

47) 박천수, 앞의 책(2023), 496~499쪽.

48) 高田貫太, 「고고학으로 본 왜와 가야의 교섭 양태」, 『가야고분군Ⅳ』, 가야고분군 세



니혼마즈야마[二本松山]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은동관이 고려 지산동32호분 출토품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점에서 대가야 금공기술을 습득한 왜인이 일본열도 현지에서 모방·제작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5세기 후엽부터 일본열도 각지에서 대가야와 관련된 유적이 증가하는 가운데, 군마현[群馬縣]·나가노현[長野縣]·치바현[千葉縣] 등에서 馬事와 관련된 대가야인 이주민의 흔적이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대가야 금제이식·마구·연질토기를 비롯하여 말을 매장한 토광이 확인된 군마현 겐자키나가토로니시[劍崎着長瀬西] 유적은 대가야인이 이주한 대표적인 마사 관련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일대는 카미즈케노[上毛野]라고 불린 지역사회로, 지배층은 지역의 경영을 목적으로 마사, 제철, 치수 등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대가야인을 적극적으로 초빙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49)</sup> 따라서 당시 가야와 왜의 인적 교류의 핵심은 선진기술과 정보의 이동이며, 때로는 가야인을 일본열도로 초빙하여 지역 사회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sup>50)</sup>

일본 고훈시대 사회에서는 4세기를 지나 5세기로 접어드는 시기를 기술혁신의 세기로 인식하고 있는데, 당시 새로운 정보와 기술, 도구가 가야로부터 도입되어 일본열도에 정착되는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51)</sup> 이때의 기술혁신은 스에키 토기의 출현 및 대량생산이 대표적이고, 갑주 등 철기의 조직적인 생산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가야지역에서 왜계 고분은 물론 이주의 흔적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6세기 왜계 고분의 출현은 5세기 기술혁신을 능가하는 왜인이 장기간 체류해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수반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가야의 금공과 마사는 왜왕권을 포함한 일본열도 각지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이었다. 이에 이와 관련된 기술은 토기 제작·생산과 같이 일상생

계유산등재추진단, 2018, 175쪽.

49) 若狹 徹, 「上毛野における5世紀の渡来人集団」, 『古墳時代毛野の実像』雄山閣, 雄山閣, 2011.

50) 高田貫太, 위의 논문(2018), 176쪽.

51) 龜田修一, 「遺跡・遺物にみる倭と東アジア」, 『日本の対外関係 -東アジア世界の成立』, 吉川弘文館, 2010.



활의 개념을 뛰어넘는 위계나 지배의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훨씬 더해졌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열도 내의 적극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야지역과 인접한 규슈지역에서는 다양한 출신의 왜인들이 집중되었을 것이다. 향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각 지역 출신 별로 교류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대외항로와 거점 교역장의 확보, 대규모 거래처(소비시장)의 확보를 위한 경쟁적 관계에 놓였을 수도 있다. 주거 중심으로 구성된 취락이 아닌 고분이라는 상징성이 강한 기념물이 출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가야지역과 전통적으로 교류 활동을 벌인 규슈지역 출신 왜인들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규슈 북부지역 출신과 달리 중서부지역 출신의 왜인들 중 일부는 가야지역에서 정착하여 가야 멸망 이후에도 신라와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IV. 맺음말

가야가 번성했던 한반도 동남부지역은 일본 규슈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선사시대 이래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삼국시대에 이르러 그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이 글은 6세기를 기점으로 가야와 왜의 교류양상이 물적 교류에서 고차원적 성격의 인적 교류로 변화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3~5세기 가야와 왜의 교류는 토기, 청동기, 철기 등의 물질자료를 매개로 이루어졌고, 일본열도 각지에서 제작된 물품들이 규슈지역을 경유하여 가야지역으로 전해진다. 반면 6세기 가야와 왜의 교류는 물적 교류를 넘어 고차원적인 인간의 생각과 의식이 동반되는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왜계 고분을 통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가야지역에서는 왜계 고분의 축조와 관련된 각 요소만 출현한 것이 아니라 왜인의 상장유례와 관계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당시 가야와 왜의 인



적 교류의 핵심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정치·외교의 목적보다 선진기술과 정보의 습득과 관련이 깊다. 일본열도에서는 금공, 마사와 같이 선진기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었고, 가야지역과 인접한 규슈지역에서는 다양한 출신의 왜인들이 모여들었다. 이때 규슈 북부지역과 중서부지역 출신의 왜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야와 교류를 주도하였음이 왜계 고분문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대 사회의 상징적 기념물인 고분을 통해 교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상호 경쟁적 관계의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때 규슈 중서부지역 출신의 왜인들 중 일부는 가야지역에 정착하는 삶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백제-가야-왜를 연결하는 남해안일대의 고고학적 현상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관점과 모델을 활용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규슈 북부지역과 중서부지역 출신 왜인들이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정착하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23년 07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8월 31일부터 09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9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三國志』

朴天秀, 『가야문명사』, 진인진, 2018.

박천수, 『고대한일교류사』, 경북대학교출판부, 2023.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巨濟 長木 古墳』, 2006.

대성동고분박물관, 『동아시아 교역의 가교 대성동 고분군』, 2013.

김권일, 「일본 고대 키비(吉備)지역 초기 철 제련유적 검토」, 『유라시아문명사연구회 제24회 정기발표회』, 유라시아문명사연구회, 2023.

김규운·김준식, 「한반도 전방후원분과 왜계석실의 분포유형 검토」, 『韓國上古史學報』 70, 한국상고사학회, 2010.

김일규, 「남해안지역 須惠器(系)土器의 출현배경과 의의」, 『삼국시대 남해안지역의 문화상과 교류』, 제3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2011.

김준식, 「倭系石室로 본 加耶와 倭의 교류」, 『大丘史學』 136, 大丘史學會, 2019.

김준식, 「가야 속의 왜계문물의 현상과 과제」, 『동아시아의 열린 공간, 가야』,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2023.

김혁중,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倭系 甲冑)의 분포와 의미」, 『중앙고고연구』 8,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김혁중, 「4~6세기 찰갑을 통해 본 한일 교류」, 『한국고고학보』 2021-1, 한국고고학회, 2021.

김혁중, 「고대 갑주의 의례적 성격 -고분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2022-2, 한국고고학회, 2022.

朴智惠, 「4~6世紀 嶺南地方 出土 鐵鎧의 變遷과 地域性」,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유영춘, 「삼국시대 사행검(蛇行劍) 一考察」, 『한국고고학보』 2022-2, 한국고고학회, 2022.

이영식, 「가야문화의 국제적 성격 -김해 대성동구분군과 함안 말이산고분군을 중



- 심으로-」,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함안 말이산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심포지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
- 이영식, 「문헌사학으로 본 가야」,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2016.
- 李知熙, 「한반도 출토 須惠器의 시공적 분포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鄭仙雲, 「加耶 港市の 成立과 展開」,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鄭澄元·洪潛植, 「筒形銅器」, 『福岡大學綜合研究所報』 240, 福岡大學, 2000.
- 조성원, 「영남지역 출토 4~5세기대 土師器系土器의 재검토」, 『한국고고학보』 99, 한국고고학회, 2016.
- 洪潛植, 「釜山東萊貝塚出土の土師器系土器」, 『福岡大学考古學論集 -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事業會, 2004.
- 홍보식,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요소 -기원후 3~6세기대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44, 한국고대사학회, 2006.
- 홍보식,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황혈식석실의 구조와 계통」,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학연문화사, 2011.
- 龜田修一, 「遺跡・遺物にみる倭と東アジア」, 『日本の對外關係 -東アジア世界の成立』, 吉川弘文館, 2010.
- 久住猛雄, 「하카다만 무역의 성립과 해체 재론 -토기에서 본 왜와 한반도 교역망의 변천-」, 『금관가야의 국제교류와 외래계 유물』, 제20회 가야국제학술회의,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4.
- 宮元香織, 「横穴式石室からみた九州の後期首長墳について」, 『後期古墳の再検討』, 第11回九州前方後圓墳研究會 佐賀大會, 九州前方後圓墳研究會, 2008.
- 高田貫太, 「고고학으로 본 왜와 가야의 교섭 양태」, 『가야고분군Ⅳ』,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8.
- 木下亘, 「한반도출토須惠器(系)土器에 대하여」, 『百濟研究』 3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3.
- 武末純一, 「土器에서 본 加耶와 古代日本」, 『加耶史論集1 -加耶와 古代日本-』, 김해시, 1998.
- 鈴木広樹, 「가야권역에서 출토된 스에키계 토기의 역사적인 배경」, 『문화재』 55-2,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 柳澤一男, 「5~6世紀韓半島と九州-九州系埋葬施設を中心として」, 『加耶, 洛東江에서 榮山江으로』, 제12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金海市, 2006.



- 浜中邦弘・田中元浩, 「宇治市街遺蹟(宇治妙樂55)古墳時代流路SD302について -出土須恵器と年代觀の検討を主として-」, 『第14回京都府埋藏文化財研究會發表資料集 -京都府内最新の研究成果-』, 京都府埋藏文化財研究會, 2006.
- 若狹 徹, 「上毛野における5世紀の渡来人集団」, 『古墳時代毛野の実像』雄山閣, 雄山閣, 2011.
- 井上主税, 「朝鮮半島南部の土師器系土器について」, 『韓式系土器研究』X, 韓式系土器研究會, 2008.



Abstract

## Aspects of exchange between Gaya and Wa seen as a turning point in acceptance of Wa-style culture

Kim, Jun-sik

This article paid attention to the phenomenon in which the exchange patterns between Gaya and Wa changed from material exchange to human exchange starting in the 6th century. Exchanges between Gaya and Wa in the 3rd to 5th centuries were carried out through earthenware, bronze, and ironware, and items produced in various parts of the Japanese archipelago were handed down to the Gaya region via the Kyushu region. First of all, the power that led the exchange between Gaya and Wa in the 3rd and 4th centuries can be said to be the ruling class of Geumgwan Gaya, who built the ancient tombs in Daeseong-dong, Gimhae. They continued to grow and develop based on trade, which utilized the resources accumulated in various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iron, and the relay of Chinese culture. However, it began to decline from the 5th century as it suffered a serious blow from the invasion of the Goguryeo army. From this point on, as Gaya and Wa diversified their exchange targets and regions, the Wa culture gradually expanded beyond the Gimhae region to the southern coast and western inland regions. Since the 5th century, as large and small ports connecting Gaya and Wa have been operated, the range of choices related to exchanges has widened, and furtherm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regional network related to trade with Wa was formed.



Exchanges between Gaya and Wa in the 6th century centered on highly human exchanges beyond material exchanges, and traces of them can be found through ancient tombs in Wa-style. In the Gaya region, not only each element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ancient tombs of the Wa appeared, but also included parts related to the funeral rites of the Wa. At the time, the core of human exchange between Gaya and Wa was more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advanced technology and information than political and diplomatic purposes. In the Japanese archipelago efforts were made to meet the demands for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goldsmiths and horse breeding, and Wa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gathered in the Kyushu region adjacent to the Gaya region. At this time, it is confirmed in the Wa-style tomb culture that the Wa people from the northern Kyushu region and the mid-western region led exchanges with Gaya as the center. And Through the tombs, which are symbolic monuments, the possibility of a mutually competitive relationship to gain the upper hand in exchange was also suggest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at this time, some of the Wa people from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of Kyushu chose to settle down in the Gaya region.

**keywords :**

Gaya, Wa-style tombs, material exchange, human exchange, turning point, advanced technology



